

##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의 구약 이야기 설교, 제2강, 그리스도 중심 설교 논쟁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중심 설교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 팬이 아니시라면, 그는 NBA 농구 선수였고, 역대 최고의 선수(GOAT, Greatest of All Time)로 불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NBA 경력 초기에 시카고 불스 코칭 스태프가 공격 전술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그 콜린스는 훌륭한 코치였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그는 조던에게 거의 항상 공을 맡기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텍스 윈터라는 코치는 공을 선수들 간에 계속 돌리는 이른바 '트라이앵글 오피스'를 주장했고,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더그 콜린스 감독은 텍스 윈터를 벤치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단 경영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콜린스 감독은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텍스 윈터의 제자였던 필 잭슨이라는 코치가 부임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필 잭슨은 스타 플레이어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6번의 NBA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라고 해도 마이클 조던의 업적은 존경할 만합니다. 설교 분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열띤 논쟁이 있는데,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은 구약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 접근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그 논쟁은 그들이 '역사적 본문'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온 시드니 그레이도니스 박사는 1970년 박사 학위 논문인 『오직 성경: 역사적 본문 설교의 문제점과 원칙』에서 이 논쟁을 탐구했습니다.

참고로, 그 책은 아직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Wipf & Stock 출판사에서 여전히 발행하고 있죠. 오늘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면, 이 책은 제가 읽어본 책 중 가장 지루하면서도 가장 매혹적인 책 중 하나입니다. 지루한 부분은 박사 학위 논문이라서 그런지, 네덜란드 이름과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한 그룹이 모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 속 인물들을 본받아야 할 본보기 또는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즉, 다윗은 옳은 일을 했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다윗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으니,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한쪽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레이도니스가 구속사적 접근법이라고 불렀던 것, 또는 오늘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은 내부적인 의견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학자들과 설교자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매우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설교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이 1940년 5월 네덜란드를 침공하여 1945년에 점령했습니다.

그레이도니스가 지적했듯이, 이 점령이 일상생활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은 논쟁을 지속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내 분열로 인해 논쟁은 재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 후인 1970년, 시드니 그레이도니스는 자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논쟁을 다시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역사적 본문을 설교하는 자신만의 비판과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각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범적 접근법은 이야기 속 인물들을 본받아야 할 대상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신약 성경의 세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사도 바울이 광야를 방황하던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6절과 11절에서,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이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들은 예시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구속사를 모범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륭한 설교자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구속사적 접근 방식은 구약의 역사적 본문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설교자라면, 탐욕이나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싶을 때, 이야기 형식의 본문에서 예시를 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에 대해 직접 계시하신 내용을 담은 본문을 택해야 합니다. 구속사적 해석을 주장하는 설교자들은 이러한 예시적 접근 방식을 성경을 여러 인물의 전기 모음집으로 읽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합니다. 네, 그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나 성육신으로 마법처럼 선을 긋거나 곡예처럼 뛰어오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진영의 설교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시'로 번역된 단어들의 그리스어 원문은 '투포이(tupoi)'이고, 철자는 '티포이(typoi)', 즉 '투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type'이라는 단어가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1절의 '투포이'와 '투피코스(tupikos)'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적 예시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사건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 속 인물뿐 아니라 성경 외

인물들도 등장하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들을 구체적인 예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시드니 그레이도니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레이도니스는 양측의 주장을 심사숙고한 끝에 아주 훌륭한 비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서술이 인물의 전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보세요, 이 서술들은 태초부터 활동해 오신 그리스도, 곧 로고스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는 구속사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규범적 권위뿐 아니라 역사적 권위도 지닌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측면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담긴 윤리적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시간에 구약 성경의 일부 이야기 책들이 전선지서,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등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단지 이야기를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레이도니스도 이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기록이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 위로, 훈계를 찾기 위해 다른 범주의 텍스트를 찾아보거나 예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역사적 텍스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텍스트의 선포, 이러한 서사적 텍스트의 설교는 적절해야 하며, 서사의 하나님 중심적 틀 안에서 구절의 윤리적 핵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행하신 일들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구속사적 접근법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의 서술 본문을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틀에 가두는 구속사적 접근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모범적 접근법 역시 그것들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다윗이 여기서 틀렸으니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 논문 발표 18년 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목회자와 예비 설교자들을 위한 책인 『현대 설교자와 고대 본문』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복음주의 설교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준 최초의 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네 가지 종류의 성경 문학을 다루었는데, 그중 구약 성경 이야기에 대한 장이 두어 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의 '엄청나게 먹는' 접근 방식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꿨어요.

흥미로운 반전은, 그레이도니스가 1999년 저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현대적 해석학적 방법』에서 훨씬 더 엄격한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법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책은 훌륭한 책이고 저에게는 매우 유익했지만, 그가 원래의 결론에서 되돌아가 이제는 설교자들에게 구약 본문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묘사한 대로 더 루터교적인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그런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레이도니스의 중재적 관점이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충실하게 설교하는 데 있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관점은 구약 설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관점들은 모범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구약 내러티브 본문을 연구하여 그 안에 담긴 신학을 파악하려는 신 중심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한쪽 관점이다.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대안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제시되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든 설교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저명한 설교자들과 교수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유효한 접근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유효한 접근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양측 모두 구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직접 이 사실을 밝히셨으니까요.

누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몇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길을 함께 걷던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몇몇 신도들이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말한 대로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 그리 어리석고 믿음이 더디냐?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벽에 붙은 파리가 아니라, 어딘가를 뱅뱅거리며 엿들을 수 있는 파리가 되고 싶었어. 나중에 그는 거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 분류는 히브리 성경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는 초기 예언자들과 후기 예언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예언자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이 있고, 후기 예언자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있는데,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문서라고 불리지만, 시편이 워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줄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구약 성경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는 '훈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하고, 성문서는 여기서는 시편으로 줄여서 부르지만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T는 토라, N은 네비임(성문서), K는 케투빔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T는 토라, N은 네비임(예언서), K는 케투빔(성문서), 즉 타나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삼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전파될 것이니, 그 시작은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15가지 범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고, 각 범주 안에도 세부적인 견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제가 신중심적 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관점인데,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할 때 그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설교자들은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특정 본문을 설교했던 존 칼빈의 전통을 따릅니다. 저는 시드니 그레이 도니스의 저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법』에서 이 점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 구약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고, 존 칼빈이 바로 그런 해석을 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칼빈은 루터와 달리 신 중심적 설교는 암묵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바를 설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칼빈은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매우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신중심적 관점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로는 켈 랭글리 박사와 아브라함 쿠루빌라 박사라는 두 명의 설교자이자 학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들에 관한 책도 나왔습니다.

음, 얼마나 최근 책이죠? 지금이 2018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브라이언 채플의 『설교학 및 해석학: 오늘날 설교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이라는 책인데, 구속사적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 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쿠루빌라의 기독교 중심적 견해와 켈 랭글리의 신 중심적 견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쿠루빌라의 기독교적 관점은 결국 신중심적 관점일 뿐입니다.

그는 정말 영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설교할 때, 설교하는 본문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고,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형상'은 '아이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적'이라는 거죠. 일종의 속임수 같아요.

사실 이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설교 관점이에요. 그런데 제목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두 설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랭글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등장인물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목적이 신학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은 종종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야기들에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들이 도덕적 교훈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랭글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경을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자기 계발서처럼 취급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성경의 명령적인 가르침을 억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저는 이전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학자이셨던 고든 웬햄 교수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이야기는 토라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토라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율법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라'는 본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교훈적입니다. 신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형제자매들은 설교하고 가르칠 때 명령의 중요성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권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권면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에이브 카라벨라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자들이 설교 본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확인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그리스도적'이라고 예리하게 명명하는데, 이는 그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경의 각 구절이 그리스도의 형상, 즉 성상의 한 측면을 묘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설교가 삼위일체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글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아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카라벨라가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그것이 구약 성경 개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지만, 그는 성경 신학, 즉 성경의 주제들을 추적하고 그것들을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 맞춰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교가 그런 일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설교란 특정한 본문의 구체적인 메시지, 즉 하나님의 요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적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심적 관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중심적 관점, 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할 때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식에도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니까요. 용어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니 그레이도니스는 이러한 보다 엄격한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 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칼빈의 신 중심적 방법과 루터의 그리스도론적 방법 사이 어딘가에 위치시키지만, 결국에는 루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이 해석되는 맥락에 기반하여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세우는데, 그 맥락이 바로 신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수 세기 앞선 책에서 어떻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는 설교하는 구약성경 본문에서 나아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연결이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 특정 신약 사건이나 하나 이상의 신약 구절과 연결할 만한 단서, 즉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에서 그는 이러한 연결을 위한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그는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약속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셋째, 유형론에 관하여. 셋, 유추에 관하여. 다섯째, 종단적 주제.

여섯 번째는 대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약 성경 참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살짝 힌트를 드리는 셈이네요. 어쨌든, 그게 그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작가의 의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하는 방법은 엄격한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뛰어난 해석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책들을 몇 권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책, 전도서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책, 다니엘서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책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저서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서 창세기 38장에 대한 제 연구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성경 해석가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접근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이야기 본문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 명령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대한 설교가 찰스 해돈 스펀전이 구약 본문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발판으로 사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신중한 해석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소위 ‘유형화와 우화의 늪’을 헤쳐나가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드니 그레이도니스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의 협소함은 구약 성경 본문을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 적용하는데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설교자들에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용기의 모범으로 제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원수를 물리치셨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 이 구절을 위치시키며, 그 흐름은 곧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에 눈이 멀어 악한 자와의 싸움을 보지 못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 왔다면,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레이도니스 목사님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나아가십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브라이언 채플은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관한 교과서를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연한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법과 서술법을 설교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단, 명령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서술법,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행하신 일에 근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의 우려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들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훈계를 늘어놓고, 설교를 하고, 선하게 살고, 충실하고, 순종하라고 말할 뿐, 성경 전체의 큰 맥락 속에 그것들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플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복음의 관점이 마치 엑스레이 안경처럼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언급이 갑자기 덩불 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측면과 구원이 필요한 인간 본성의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셨죠. 저는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설교뿐 아니라 사역 전반에 걸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레이도너스와 채플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구절들을 다룬 설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싶어하며, 예수님이 성경의 주요 주제, 인물, 이미지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다윗, 더 나은 에스더, 참된 왕,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핵심은 특정 본문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위대한 이야기의 한 장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심주의와 그리스도중심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관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지지하는 세 번째 관점은 이 두 관점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재적인 관점입니다.

시드니 그레이도너스가 1970년 박사 학위 논문에서 주장했던 견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중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의 위험성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거의 절반을 몬태나에서 살았고, 한여름 동안 목장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옛 서부 시대의 속담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속담들은 직설적이고 단어를 빠짐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래,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중재적 관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요점은, 음,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그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만 그 메시지와 윤리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성경 전체의 큰 맥락, 즉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신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명칭을 붙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그리스도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목표, 즉 텔로스(telos)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 윌튼이 표현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제가 이 이야기들을 설교하면서 느끼는 부담감과 걱정을 정확히 짚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영국 구약학자이자 설교, 특히 구약 설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구분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속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세부 사항이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줄거리와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신중심적이다' 또는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중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심적인 설교자들에게 드리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본문의 신적 요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드보라, 아브라함, 롯, 다윗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은 성경 전체의 거대 서사와의 연결 없이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메시아이신 예수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제 친구인 에이브 쿠라벨라와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ETS(복음주의 신학회) 세션에 함께 참석하여 "사무엘상 17장을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내용을 자신의 웹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라벨라 박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는 설교를 성경 신학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특정 본문의 메시지를 해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적용하는 자리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신약 시대 신자들의 삶에 구약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쿠라벨라 박사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이 개별 구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특정한 핵심 내용이 그의 말대로 성경 신학적 논의에 묻혀버린다면, 저는 그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지 설교 방법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더 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 시간을 10분이나 할애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심적인 설교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경고입니다.

제가 기독교 중심적인 설교자들에게 드리는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독교 중심적인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설교에서 본문을 너무 빨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다 보면 그 본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이 당시 독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본문을 단순화하여 모든 설교가 똑같이 들리게 만들고, 노동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지도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도 그 주제가 크게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인 케빈 밴 후저 박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밴 후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들을 억지로 연결시켜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맥락 말입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다시 말해, 신의 구속 역사의 중심적인 극적인 흐름은 예언자, 제사장, 왕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여러 측면을 예견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설교자인 루카스 오닐은 이러한 위험을 본문을 놓치는 두 가지 위험, 즉 설교의 세부 사항을 존중하지 못하는 위험과 본문을 오용하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믿고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시드니 그레이 도니스가 그의 책에서 긍정적으로 인용한 구절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른 저자의 글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사상을 설교하거나 윤리적 권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사건들을 되풀이함으로써 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개념과 윤리적 권면을 설교하고,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사건들에 근거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설교할 때, 신 중심적 접근과 그리스도 중심적 접근을 대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인 신중심주의가 후자인 그리스도중심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자인 그리스도중심주의는 전자인 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명한 신약학자인 돈 카슨 박사(DA Carson)가 RC 스프로울과 신약 저자들이 성경 신학적 범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가 매우 흥미로웠는데, 카슨 박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일부 설교자들이 구약의 이야기 본문을 읽고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저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신학적 흐름, 성경적 신학적 흐름과 범주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 왕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카슨 박사는 다윗 왕조를 언급하겠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과 주제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도덕적 범주를 간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DA 카슨은 보통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자로 여겨지고 복음 전파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그조차도 신약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단 한 가지 일로만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중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 본문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티븐 D. 매튜슨 박사가 진행하는 구약 이야기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